

[말레이시아, 2014년 7월][수산물 및 수산식품 해외시장 동향]

1. 관할지역 현장이슈

▶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수입 60% 감소

- 최근 Johor지역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입이 60% 감소하였음. 수입 감소 현상은 2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되었고 올해 급격히 줄어듦. 인도네시아 Sumatra의 수산물 수출업자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산물 공급이 줄어 말레이시아 Johor 지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 산 고등어의 가격이 15%~30% 증가하여 태국 수입수산물과 국내 수산물보다 가격이 높아짐.
- 수산물 거래처들은 현재 1주일에 2회씩 100상자 (100Kg/Box) 정도의 물량이 Johor지역에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함. 이 수치는 예전 150 ~ 300상자 수입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량임.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몇몇 수산물 수입자는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음. Johor 지역 수산물 공급의 15%정도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수산물임.

▶ 말레이시아, 2020년까지 수산물 시장 50% 확장 기대

- 현재 2020년을 목표로 수많은 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수산물 시장을 계획기간 내에 50%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정부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수산 시장은 식용 해산물 시장과 양식산업(아쿠아-컬처) 분야로 동등하게 나눌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양식산업 분야는 수산 시장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2014 말레이시아 국제 해산물 엑스포에서 발표함. 양식산업 분야는 수산물과 해초류 양식 그리고 장식용 수산물의 확장에 집중하고 있음. 이런 결정은 국제 시장의 해산물 시장 확대와 그 수요에 맞는 공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정부 관계자는 또한 말레이시아 산호초의 수요 증가에 관심을 두고 있음. 최근 독일 쪽 피드백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산 산호초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다고 평가되어 Trengganu 지역 산호초 재배를 확장할 계획임. 말레이시아 국가농업식품 정책을 따라 2020년까지 2백만 톤의 해산물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중임. 2013년 말레이시아의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1백 74만 톤이며 총 106억 링깃 (약 35억 달러)라고 함. 이것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1.3%를 차지하며, 1차산업 GDP의 12.5%를 차지하는 수준임.

▶ 친환경 해산물 소비 움직임

-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임. MSC인증 받은 수산물은 어획, 가공, 유통기준을 통과 받은 식품으로서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해산물의 수요가 동남아 지역에서 높은 말레이시아에선 MSC인증 받은 한국 해산물 및 관련 식품들의 시장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에게 안전한 해산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Ocean Awareness Week에서 30개가 넘는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여 MSC인증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받는 행사로 인식됨.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산물 관련 식품을 제조하는 Pacific West대표는 말레이시아의 장기적인 수산시장확대를 위해 MSC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출처 :The Star, InfoFish, DOF Malaysia)

2.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

□ 말레이시아 '14년 5월 누적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은 약 6,100천 링깃이며 전년대비 갑각류는 270.51%, 연체수산물은 25%의 증감 추세를 보임. 특히 갑각류 '14년 5월 누적 수입량이 많이 늘었음. '13년 갑각류 수입량의 50%정도가 '13년 8월에 수입되었고 전체적인 갑각류 수입이 3,4분기에 이뤄짐을 보아 전체적인 동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14년 1분기 기준 말레이시아는 연 평균 4% 정도의 해양, 수산 시장의 성장률을 보임.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전체적인 GDP성장률과 중산층의 확산에 비례함.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중산층의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인 수산물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한국 수산물 대 말레이시아 수출통계>

(단위 : 톤, 천불)

순위	품 목	2013 년 6월 (누적)		2014 년 6월 (누적)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	수산물 총계	1,138.24	4,906.94	743.14	4,392.71	-34.71	-10.48
1	굴	173.14	1,503.49	164.36	1,552.50	-5.07	3.26
2	김	41.50	569.06	55.31	562.76	33.26	-1.11
3	소금	26.83	230.17	37.02	377.98	37.99	64.21
4	기타해초류	40.44	634.96	25.24	355.67	-37.58	-43.99
5	어류유지	0	0	197.60	255.52	-	-
6	기타어류	59.90	560.16	84.58	222.06	41.2	-60.36
7	참치	18.48	217.32	17.28	156.10	-6.45	-28.17
8	기타게	0.30	15.40	3.53	147.54	1,077.17	857.69
9	어란	2.17	12.94	21.50	113.14	888.51	774.16
10	미역	0.50	15.70	25.60	107.21	4,977.79	582.67

출처 : KATI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입통계>

(단위: 톤, 천 링깃)

품목	2013년 1~5월	2014년 1~5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한국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날 생선류	264,841	272,126	2.75	인도네시아	121,242	태국	104,817	노르웨이	32,30	38
냉동 생선류	301,729	298,511	-1.06	중국	83,916	베트남	26,133	인도네시아	24,506	643
생선 필레트류	114,981	136,941	19.1	베트남	46,229	인도네시아	35,850	중국	22,293	2,917
건어물 / 염장생선류	37,490	48,035	28.13	태국	28,422.	미국	6,761	미얀마	6,279	150
갑각류	293,020	326,161	11.31	중국	179,652	인도네시아	38,020	인도	27,973	3,043
연체 어류	94,553	109,692	16.01	중국	44,244	인도네시아	14,306	파키스탄	7,283	3,049
기타 무척추어류	2,166	3,567	64.64	인도네시아	995	중국	959	싱가폴	482	-

출처 : 말레이시아 무역국 (METS)

3. 타국산(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김

- 전체적으로 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 동남아 지역에 스낵형 김이 인기가 많아 태국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해초류 생산을 확장 중이지만 식용 김의 생산은 저조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 김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음.

□ 새우

- 말레이시아에서 새우는 수요가 높은 수산물중 하나며 고등어, 오징어, 농어, 그루퍼, 다음으로 수요가 높은 현지인들이 자주 즐겨찾는 식재료중 하나임.
- 새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Sarawak 지역이며 총 생산량은 연 8만 톤에 달함.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새우는 미국, 유럽, 중동지역 등 여러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음.
- 2000년 초 까지 Tiger새우를 중심으로 생산하였으나, 수요의 변화로 인해 White새우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중국, 태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새우 조기사망증후군으로 인해 `13년 어획량은 약 13,000톤임.

4. 동향 분석 [김]

□ 생산동향

- 말레이시아는 해초류 생산을 Sabah, Sarawak 주에서 대부분 생산하지만 국내산 해초류 및 김은 대부분 가정이나 식당의 식재료 및 장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공 및 스낵용 김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 대부분의 김 수입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태국, 대만, 한국, 일본,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추세임.

- 말레이시아 해초류 생산량

구 분	생 산 량(Ton)					증감률(%) (2011~12)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초류	111,298	138,856	207,892	239,450	331,490	38.44

*) '12년 까지 통계

출처 : 말레이시아 해양수산부(DOFM)

□ 수입동향

○ 품목 분류

- 명칭 : 김(건조), 김(조미김)
- 한국은 김(건조), 김(조미김) 단독 HS코드가 있어 김 통계치를 따로 구분할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는 김 단독 HS코드가 없어 KATI 통계치와 말레이시아 통계청(DOSM) 또는 Global Trade Atlas 통계상의 차이가 존재.

한 국		말레이시아	
HS Code	설 명	HS Code	설 명
2106 90 4010	김(조미김)	1212 20 000	Seaweeds and Other Algae
1212 21 1010	김(건조)		

출처: KATI, MITI Malaysia

<한국 김 대 말레이시아 수출통계>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13 년 6월 (누적)		2014 년 6월 (누적)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계	41.50	569.06	55.31	562.76	33.26	-1.11
김(조미 김)	40.01	544.93	30.53	419.95	-23.69	-22.93
김(건조)	1.49	24.13	24.78	142.80	1,557.56	491.64

출처 : KATI

- 한국산 조미 김 수입량 및 수입액이 전년대비 각각 33.26%, -1.11% 증가 / 감소하였음. 한국 제품과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한국 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음. 대부분 스낵용 김 혹은 스시 제조용 으로만 섭취하던 김이 밥반찬 용 으로 새로운 자리를 메꿔나가고 있음. 해표, 신성식품 뿐만 아니라 CJ같은 대기업 식품들도 점차 수입되고 있음.
- 아직까지 김을 스낵용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 태국의 Tao Kae Noi 같은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음. 대부분의 한국 김은 밥 반찬용이므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견고해지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소비동향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김은 스낵, 조미, 부재료, 스시용 등으로 크게 나뉘며 말레이시아 소매점(슈퍼마켓,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김은 크게 스낵용과 스시용김, 조미김 형태로 나뉨.
- 말레이시아에서는 밥을 주식으로 하여 조미 김에 대한 밥반찬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현지 로컬 수입업체들도 한국산 조미 김의 수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직접 수입을 하거나 OEM체결을 통하여 대형 마트 등에 납품을 하고 있음.

□ 유통현황

- 태국산 : 스낵형 제품이 (브랜드 : Tao Kae Noi, TRIPLE M) 수입되어 대형 유통매장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스낵코너에서 판매되며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임. 다양한 맛과 형태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
- 한국산 : 한인마트 뿐만 아니라 AEON, Cold Storage 등 말레이시아에 거의 모든 대형 유통매장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한국산 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대부분의 한국산 김은 식사와 곁들이는 반찬용으로 판매 되고 있음
- 일본산 : 일본 김은 대부분이 스시용 김이며, 넓은 모양의 김과 소형의 스시용 김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김 판매현황 >

원산지	포장	제조회사	단위	할랄 여부	가격
한국		해표	16 g / 1팩(8봉)	X	RM 9.99
		해표 돌김	20 g / 1팩(8봉)	X	RM 10.99
		신성 (파래자반)	70 g / 1팩	X	RM 9.90
		신성 (돌김)	23 g / 1팩(10봉)	X	RM 6.90
		신성 (불고기맛김)	23 g / 1팩(10봉)	X	RM 6.90
		신성 (천해김)	46 g / 1팩(12봉)	X	RM 16.90
		CJ 비비고 (불고기)	15 g / 1팩(3봉)	X	RM 7.50
		CJ 비비고 (재래 김)	15 g / 1팩(3봉)	X	RM 7.50
		해맛	72 g / 1팩(12봉)	X	RM 19.90
		광천 김	13.5 g / 1팩(3봉)	X	RM 5.90

태국			TAO KAE NOI	12g / 1팩(3봉) 한국 스타일 클래식 맛	X	RM 5.49	
			TAO KAE NOI	25 g / 1팩 김 튀김	X	RM 2.99	
			TAO KAE NOI	20 g / 1팩	X	RM 3.49	
				36 g / 1팩		RM 5.49	
				Noi Seaweed	40 g / 1팩 아몬드 맛	X	RM 6.99
				TRIPLE M	40 g / 1팩 오리지날 맛	X	RM 6.29
			TRIPLE M	40 g / 1팩 핫 앤 스파이시 맛			
중국			Takashi	2 g / 1팩(6봉) 스낵용 롤	○	RM 6.29	
				7.5 g / 1팩(10봉) 와사비 맛	○	RM 2.69	
일본			Uminoho	50 g / 1팩	○	RM 7.99	
			Crown A (Hong Xiu)	90 g / 1팩	X	RM 11.99	
			Nico-Nico Nori	4.2 g / 1팩(10봉) 가공 김	X	RM 7.90	
				27 g / 1팩 구운 김	X	RM 16.90	

* RM 1 = 322.73원(2014.07.15.)

□ 향후 시장 전망

-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김은 식사 시 곁들이는 반찬용이 아닌 스낵용으로 꾸준히 인식 되고 있고 일본 초밥류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해산물에 대한 인식은 일본 제품이 가장 높지만 한국 김의 인지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산 김이 식사 시 곁들이는 반찬으로 인식이 점차 되어가고 있으며 한국산 김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의 수입 김은 중산층 소비자들의 수요로 인해 판매 되고 있는 추세임. 한국산 김 외에 태국산 김이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태국산 김은 대부분 스낵 및 간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음. 김 자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할랄 인증 없이도 식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산 김은 구운 김 보다 식사에 사용되는 가공된 조미 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을 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슬림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시 사 점

- 말레이시아에서 김은 스낵용으로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현지 시장을 겨냥한 스낵용 김을 판매할 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됨
- 수산물 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는 중산층의 성장으로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미 한국 제품은 현지 시장에서 높은 질과 고가의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대상 저가 상품을 판매 시 성공적일 것이라 예상됨.
- 무엇보다도 현지 할랄인증을 통한 대중화 전략을 통해 수출을 증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출처 : The Star, SEAFDEC, 말레이시아 통계청 (DOSM), KATI, 말레이시아 해양수산물부(DOF Malaysia), FAO)